**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(가)** 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. **인기척 끊**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.  **백화(白樺) 앙상한 사이**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롬도 잊고 왔더니라 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(風雪)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훌 훌 훌 창천(蒼天)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 쏴아 ― 한종일내 ―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…… **구월**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(潭) 위에 호르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.  **어젯밤**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**바다의 별들**을 보았느니,  이제 나의 이 **오늘밤**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**하늘에 별들**은 쓸리며 다시 **꽃과 같이 난만(爛漫)하여라**.  - 박두진, 『별 - 금강산시 3 』-  **(나)** 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**사람들**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 길은 순순히 **사람들의 뜻**을 좇지는 않는다 |  |  | |  | | **[A]** | |  | |  |  | |  |  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 **벼랑 앞**에 세워 **낭패**시키는가 하면 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|  |  | |  | | **[B]** | |  | |  |  | | 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**사람들**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|  |  | |  | | **[C]** | |  | |  |  | |  |  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 **세상 사는 이치**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그래서 길의 뜻이 여기 있는 줄로만 알지 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|  |  | |  | |  |  | | | **[D]** | |  | |  |  | |  | |  |  |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 아는 **사람**에게만 **길**은 고분고분해서 |  |  | |  | |  |  | | | **[E]** | |  | |  |  | |  | |  |  | |   **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** 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 그것을 알고 나서야 **사람들**은 비로소 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|  |  | |  | |  |  | | | **[F]** | |  | |  |  | |  | |  |  | |   -황동규, ｢살구꽃과 한때｣-  **(나)**  1 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,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.  2 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**긴긴 역사**라거나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**수의**(囚衣)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**벗고 싶은**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.  3 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왼통 괴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불어 가야 할 저 **환히 트인 길**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.  - 신경림, 『길』 -  **(다)**  **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**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.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.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**노란 슬픔의 이야기**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. 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.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낭창하였습니다.  (중략) 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**실비 오는 무더운 밤**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―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…….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. 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.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.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.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**가슴의 병**을 얻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다.  밤이 **아직 샐 때**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.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헝겊이나 얻어다가 알룩달룩한 각시나 만들면서 **이 남은 밤**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**육보름\***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. 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웃간에도 맏웃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째듯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.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데로는 **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**입니다.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. **새악시 처녀들**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긷는다고 벌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옹패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**자깔자깔** 하는 밤입니다.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 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쾡이같이 여우같이 **부잣집**으로 가서는 날쌔기도 하게 기왓골의 **기왓장을 벗겨 오고** 부엌의 솥뚜껑을 들어 오고 곱새담의 짚날을 뽑아 오고……. 이렇게 **허물없는 즐거움** 속에 **끼득깨득**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.  - 백석, 『편지』 -  \*육보름 : 정월 대보름 다음날. |